

## 뉴질랜드의 양육현황



李 仲 海

우리나라는 녹용생산위주의 양육업을 하고있지만 뉴질랜드는 녹용은 부산물이고 사슴고기 ( Venison )가 주생산물인 양육업을 하고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약 375,000 마리의 사슴을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의 반은 새끼를 낳는 암사슴이다. 종류별로 구분하면 레드디어 85%, 엘크와 레드디어 잡종 5% 헬로우디어 10% 등이다.

그들은 녹용가공을 위하여 300 만불을 들여 공장을 세워 1년에 약 900 만불의 녹용을 다른나라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국이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며 1981년에 최초의 사슴도살시설을 만든 이래 현재 1,100 만불을 들여서 지은 10개의 시설을 통해 1년에 약 1,800 만불의 사슴고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사슴고기는 약 48%는 서독, 12%는 스위스, 10%는 다른 유럽국가, 17%는 미국, 5%는 일본, 5%는 호주로 가고 나머지 3%는 아시아와 태평양연안국가로 간다.

한국의 양육협회와 같은 뉴질랜드양육인 협회는 첫번째 사슴농장이 생기고 5년후인 1975년에 발족되었는데 이 협회는 양육업자를 대표해서 정부당국이나 해당관청을 상대로 산업적인 제안등을 포함한 공동관심사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 협회 뉴질랜드의 양육사육가들은 그들의 관심

속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협회와 국가차원의 후원속에서 활동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있다.

우리나라의 양육업과 비교하면 그저 부러울 뿐이다. 우리나라의 양육협회는 많은 양육농가의 비협조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양육업이 완전히 축산업으로 정착해가고 많은 녹용이 수입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오히려 사치산업이라고 하여 특별소비세라는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돈을 주고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녹용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외국 (중공등)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양육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협회에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하고 정부에서는 다른 축산업의 실패 등 여러가지 경험을 되살려 세계상의 문제와 녹용의 수입을 적절히 조절해야하며 축산시험장이나 국립종축장과 같은 우수한 축산시설과 인력을 갖고있는 국가기관에서 사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의 양육업에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뉴질랜드에서 나온 자료중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이 말하는 양육업의 장래성은 다음과 같다.

1. 사슴은 양이나 소에 비해 목초에 대한 고기증체율이 높다. 똑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료량은 소의 1/2, 양의 1/3이다.

2. 세계적으로 사슴고기의 국제유통가격은 소고기의 3배, 그리고 새끼양고기(Lamb)의 5배이다.

3. 사슴고기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고기에 비해 고단백 저칼로리인 식품일 뿐만아니라 지방함량이 낮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적어 소비자들의 흥미를 끈다. (대략 지방함량은 새끼양고기의 25~35% 그리고 2살까지는 12% 정도이다. ※참고: 새끼양고기에 비교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식품은 사슴고기, 물고기(Fish), 새끼양고기이기 때문이다)

표 1. 식품성분표 (100g 당)

	칼로리(kcal)	단백질(g)	지방(g)
사슴고기	126	21.0	4.0
소고기	313	16.9	26.7
돼지고기	323	16.4	28.0
칠면조고기	218	20.1	14.7

4. 사슴은 생산성 가치가 길다. (암사슴의 경우에는 10년 정도 생산량이 일정하다)

이와같이 현재 뉴질랜드의 양록업은 가장 수익성이 좋고 장래가 밝은 목축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Fortex, Mair Foods, Wrightson Dalgety 등의 여러 사슴서비스업체가 있어 수렵업위원회와 더불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시장확대에 따르는 더 많은 녹용(표2)과 사슴고기(표3)를 생산하기 위해 최근들어 엘크사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많은 농가들이 레드디어로 부터 엘크나 엘크와 레드디어의 잡

종으로 교체하고 있다.

표 2 연령별 녹용생산량 (낙각후 55~65일 절각)

	레드디어	잡종	뉴질랜드와 피티
만 2세	1.4	1.6	2.0
3	1.9	2.5	3.0
4	2.1	2.5	3.6
5	2.6	3.3	5.0
6	2.9	3.8	5.5

※ 1980년에 출생한 사슴들에 의한 통계이다.

표 3 어린 숫사슴의 생체중 변화 (1979~1982)

	레드×레드	뉴질랜드와 피티×레드	뉴질랜드와 피티×뉴질랜드와 피티
이유식(kg)	47	55	67
14개월째(kg)	99	115	140
10~14개월의 일일증체량(kg)	234	297	362

뉴질랜드에서 발행되는 월간사슴잡지 "The Deer Farmer" 최근호에 실린 "양록산업 수출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있다.

뉴질랜드 양록산업 즉 사슴고기, 녹용, 가죽의 수출은 양이나 금액 모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록생산물 수출은 86년 7월부터 87년 6월말까지 1년동안 3,659 만불로 전년도 3,024 만불에 비해 21% 증가하였으며 4년전과 비교하면 2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육산업 수출은 사슴고기와 부산물이 67%, 녹용이 29% 그리고 가죽이 4%를 차지한다고 수렵업위원회의 시장담당 행정관인 Nickola Blunt는 말한다.

뉴질랜드 농장에서 사육한 사슴고기는 30개국 이상으로 냉동상태로 수출된다. 올해에는 2,809톤이 수출되었는데 전년 까지에 비해 양적으로는 26%, 금액상으로는 18%가 증가한 것이다.

주요한 시장은 유럽인데 수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가장 시장이 큰 나라는 독일(46%)과 스위스(10%)이다.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은 미국이다. 미국 시장은 양이나 금액 모두 각각 매년 20%와 29% 정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사슴고기 총수출 중에서 금액으로는 25%, 양으로 따지면 14%를 차지하는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Saddle(사슴의 등심고기)는 미국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Blunt는 말한다.

다.

뉴질랜드 사슴고기 10대 수입국은 독일(1,296톤), 미국(391톤), 스위스(269톤) 호주(145톤), 일본(139톤), 스웨덴(110톤) 영국(110톤), 네덜란드(74톤), 오스트리아(51톤), 대만(48톤) 등이다.

이런 기사내용에서 볼 때 우리도 노력하면 우리에게 농축산물을 사가라고 무자비하게 압력을 넣고있는 미국에 역으로 한국의 사슴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양육인들은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할 정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는 이 마당에 스스로 양육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할 것이며 서로의 의견이나 경험 또는 자료 등을 협회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발표하고 교환함으로써 한국의 양육업을 더욱 균형있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비매품)

## 양육 자료 양 룝 회 보 3호

발행일 1988년 2월 29일  
 발행인 박 용 만  
 발행처 한국양육협회(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7-16 대성빌딩 607호)  
 전 화 784 - 4540 번  
 대체구좌 012591 - 31 - 2638369 / 온라인 012591 - 0011644